

선교보고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을 다녀오다

지난 4월 1일 교단 긴급재난본부장으로서 교단총부 이강훈 목사님, 사회복지국장 이순영 목사님과 함께 서울에서 출발하여 장시간(14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튀르키예 아다나 공항에 도착하여 현지 선교사의 안내를 받아 모든 세부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돌아왔다.

우리는 현지 선교사와 함께 이번 튀르키예 지진 피해지역 11개 도시 중 3개 도시를 둘러보았다. 또한, 국제기아대책기구를 방문해서 격려도 하고 함께 재해민들에게 구호품 전달 봉사 활동도 하면서 시리아 난민들과 현지인들의 텐트촌과 컨테이너 수용 시설도 둘러보았다.

그중 안디옥은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했다.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교회(베드로 통괄교회)는 붕괴 위험 때문에 출입을 통제



해서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안디옥 도시 한복판에 개신교 교회라곤 하나뿐인 안디옥교회가 지진에 파괴된 모습을 멀리서 볼 수밖에 없었다. 도시 전체가 완전 폐허가 되어있었다. 곳곳을 보면서 인간

의 힘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다음 달에 있는 튀르키예 정부 선거의 영향으로 피해 규모와 사상자 수는 정확하게 발표가 안 되고 있고, 튀르키예 현

지 주민들과 시리아 난민들의 사상자 수 또한 아직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 또한 구호가 먼저 입에도 세상 정치가 개입이 되는 상황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우리는 정해진 일정으로 인해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이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만나 대화도 나누며 많은 정보를 얻고 돌아왔다. 출발할 때는 걱정도 많이 했는데 아무 일 없이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난해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올해 튀르키예와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성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예성 전국교회 목사님과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천민우 장로
함덕제일교회
장로부총회장



아름다운우리교회 선교비전트립

필리핀 민도로섬을 가다



부활주일을 보내고 새벽 4시 공항을 향해 출발해 가는 발걸음은 가볍다. 우리 교회가 선교 여정에 오르기 때문이다. 3시간의 탑승 준비, 4시간의 비행, 3시간의 차량 이동, 필리핀에서 헬버거 하나 풀라 한 잔으로 점심을 대신하고 항공로 달려가 3시간의 뱃길을 기다리는데, 발 걸음이 무거워지고 몸이 지치니 마음은 그제 아닌데 머리는 “우리는 이 길을 왜 가는 거지?” “주님 때문에 가는 거지!” “이 길은 힘든 데 안 가도 되는 건데!” “아니아! 복음 때문에 가야 하는 거야” 힘들고 지칠 때면 자꾸 뒤를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그날 마지막 배를 타고 항해하다 넓은 바다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소리친다. “주님! 사랑합니다.” “복음의 길은 험

복입니다.” 어디서 힘이 나는 걸까? 다시 힘이 솟는다. 이것이야말로 선교의 매력 이요 복음전도자의 비밀이다.

새벽길에 떠난 여정이 저녁 갑갑할 때 목적지에 도착하여 에어컨이 없는 텅텅이 차에 몸을 싣고 선교관에 도착하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태양열 이용한 작은 전등에 선풍기도 켤 수 없어 더위에 기절할 뻔했다. 저녁 9시가 넘어 들어온 전등은 그야말로 환호성이다.

그것도 잠깐 몇 시간 후 다시 갑갑하다. 머무는 내내 24시간 중 전기는 3~4시간 주어지는 것이 전부다. 어두움과 더움과 불편함도 선교다 생각하니 인내가 된다.

민도로섬 망안쪽을 위한 선교여정은 첫날부터 힘겨움이다. 그래도 예수사랑이 감시할 뿐이다.

한밤 자고 나니 낮익은 환경과 얼굴들이 나를 반긴다. 민도로섬 망안쪽 선교는 우리 교회가 오래전부터 자주 함께했던 선교지다. 코로나로 몇 년을 못 왔지만 반가움은 여전하다.

예수님 때문이요, 예수 사랑 덕분이다.

이튿 날 교회 건축 중인 팔만아원교회에 작업복을 입고 페인트 작업을 같이하고 난 후 아이들과 한바탕 휴먼지 날리며 놀고서 밥과 편지를 나누어 먹고 난 후 돌아오는 길에 돌짜밭에 텃밭이 행복하게 맨발로 뛰

터 아이들이 자꾸만 눈에 밟힌다.

주님! 공평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행복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나요! 어느 세월에... 이 답답함은 무엇일까? 이 생각은 나의 믿을 없는 소리인 거다.

다음 날 팔라빠 교회는 선교관에서 1시간 30분 차로 달려가 다리 걷어 올리고 물길을 건너거나 망안쪽 전형적인 원두막형 집들이, 아이들, 돼지, 개들, 닭, 염소들이 함께 맞아주었다.

교회는 지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벽돌이 흔들거리고 곳곳에 못들이 뽕뽕뽕 나와 있는 데도 모인 아이들은 2시간여 함께 예배해도 집중한다.

한 끼의 식사는 과연 이들에게 충분조건을 채워줄 수 있을까? 둘러보는 내내 과연 이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 거야! 아무리 찾아보아도 밥이나 먹을거리가 보이지 않는다.

“하늘을 열어 하나님께서 먹여주세요. 밥이라도 배불리 먹게 하소서. 예수님 당시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그때가 지금 여기에 있게 하소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글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

복음이 먼저냐? 빵이 먼저냐? 복음 안에는 빵? 빵 안에 든 복음?

10일간 여정 중에 여러 교회를 방문했는데 망안쪽들이 모이는 교회들이다.

필리핀 소수민족의 하나인 망안족, 이들은 민도로 내륙의 숲속에 거주한다. 망안족은 유목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식생활을 해결한다. 이들의 가족은 풀로 지붕을 이은 대나무집으로 땅에서 펼쳐지게끔 원두막형식의 집이다. 자신들의 종족신앙을 지키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둔하는 망안족은 필리핀에서 가장 가난하고 사회 저변으로 밀려난 사람들로 물리적, 사회적 혜택에서 철저히 외면되어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지금은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필리핀 주류 사회일원으로 편입하기 위한 조치가 하나 둘씩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이나? 예수다. 사는 목적이 무엇이나? 예수다. 복음의 길, 선교의 길, 예수 가진 길이 나의 생명 허락하시는 날까지 가야 할 길이다. 교회가 가야 할 길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자, 힘들다고 뒤로 마루지 말자.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자. 누군가는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누군가는 가야 한다. 우리가 가야. 선교는 우리가 해야 할, 가야 할 사명이다.

조명선 목사

아름다운우리교회



말씀의 초대 | 요 2:1~11

예성 공동체의 회복을 원한다면



배상도 목사
신촌은혜로온교회
서울지방회장

전통사회가 세대 연속성을 구조적으로 가능하게 한 가족 중심의 ‘연결사회’라면 현대의 산업사회는 독립세대의 ‘단절사회’라 칭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점점 독립세대의 단절화로 나아가는 모습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초대 교회 공동체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

할 수 있을까요? 이런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집에서 공동체의 회복을 보여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공동체에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본문의 가나의 혼인집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인데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 가정에 주인으로 함께 하실 때만이 공동체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때를 가리킵니다. 손님 상태로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지 않았는데 손님으로서 어떻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5절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신 것처럼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삽니다. 이미 수없이 변화된 여러 가지 현실 상황을 들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 현실에 합당치 않음을 주장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며 꼭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다양한 성직 선택을 존중해야 하지 않는가? 여러 현실에 맞게 이혼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가? 등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성이 “말씀 그대로”를 어렵게 합니다. “그대로”를 불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는 ‘말씀 그대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경험의 토를 달거나 내 지식의 주석을 달지 않고 “말씀 그대로”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주로 삼는다는 것은 그를 주인으로 존중할 뿐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원한다면 서로 섬김으로 일해야 합니다.

이 세대는 ‘귀차니즘(Lazism)’으로 가정을 이루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차니즘은 세상만사가 귀찮고 게으름 피우는 현상이 고착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귀차니즘’은 ‘귀찮-’이라는 어간에 ‘행위, 상태, 특징, ~주의’라는 뜻의 추상 명사로 만드는 영어 접미사 -ism을 붙인 누리꾼들의 신조어입니다.

요즘 공동체에서 먼저 나서서 청소하거나 예배를 준비하거나 누군가를 위해 내가 섬긴다는 것은 귀차니즘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과 용서, 이해와 회생이 없이는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회복하려면 귀차니즘을 탈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개인도 개교회도 지방회도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 하인들은 물을 길이다 붓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섬김으로 가득 채운 것입니다.

사랑하는예성 공동체 여러분! 말없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섬김으로 일할 때 주님께서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점점 더 좋은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102회기 총회를 축하드리며 교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중의와 정의를 향하는 것 ... 여호와께서 거르계 여기시노라(잠 21:3) -

■ 든든한 은금재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정년퇴직 은금 지금, 문제없습니다!

은금재단 자산 113억 시대를 감사드립니다! 자산 200억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20년(240개월) 기여금 납입자 400% 지급. 10년(120개월) 기여금 납입자 320% 지급.

교단의 정책에 따라 노후를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모두 참여하시면 노후에 많은 힘이 되실 것입니다.

이사장



민중기 목사

부이사장



김원기 장로

상임이사



김준겸 장로

서기



김정일 목사

이사



이강춘 목사

이사



이상화 목사

이사



김성은 목사

이사



이종만 목사

이사



이동규 장로

이사



김재철 장로

이사



정태관 장로

감사



이상복 목사

감사



이현승 집사

사무국장



김정규 목사

실장



이화영 전도사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은금재단

(03026) 서울시 중로구 인왕산로17길 11(행촌동)
Tel.070-7132-0072~3 / Fax.02-725-7771